

‘나주의 딸’ 안세영, 고향 꿈나무들과 ‘셔틀콕 대화’

유소년 배드민턴 교실 4주간 여정 성료

1대 1 레슨·진로 멘토링...지역 인재 육성

대한민국을 빛낸 ‘나주의 딸’ 안세영 선수가 고향 꿈나무들과 코트 위에서 특별한 만남을 갖고 지역 체육 인재 육성의 의미를 더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안세영 유소년 배드민턴 교실’은 나주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연 2회 운영됐다.

나주시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동계 교실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4주간(총 12회) 초등학생 30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기본기 훈련과

실전 경기 중심 수업으로 구성돼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종강식에 참석한 안세영 선수는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레슨을 진행하며 눈높이 맞춤 지도를 실시했다.

안 선수는 스윙과 풋워크를 점검하며 ‘기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실수해도 자신 있게 플레이하라’고 조언했고, 아이들은 짧지만 밀도 있는 개인 지도를 통해 자신감을 키웠다.

학부모들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선수 생활 과정과 슬럼프 극복 방법, 훈련 루틴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안 선수는 “꾸준함이 가장 큰 재능이며 즐기는 마음이 오래가는 선수의 비결이다”며 “함께한 친구들 가운데 미래의 국가대표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교실이 학생들의 새로운 꿈과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엘리트 체육 인재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유소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와 방학 집중훈련 정례화, 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고 지역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안세영 유소년 배드민턴 교실 종강행사’에서 윤병태 시장과 안세영 선수가 초등학생 수강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 준수...취재원 보호·상호 소통 강화”

광남일보 임직원 교육

올바른 출처 표기 주문

이승배 사장 “품격 사회 구현”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19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실무교육에는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사장·편집인이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사장은 편집윤리강령에서 취재기자는 취재원 보호를 비롯해 공정보도 준수, 옹호 단정을, 편집기자는 독창적 제목 뽑기와 획기적인 지면 배치 등을 주문했다.

특히 사람의 첫인상은 단 몇 초만에 정해지며 그 첫인상은 잠깐이 아니라 오래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읽기 편한 지면 제작을 위해서는 취재기자와 편집기자가 취재·편집·교정 과정에 대해 수시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언론의 사진, 동영상 인용보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저작권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19일 오후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보호와 언론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요건에 맞게 출처를 표기할 것을 강조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주수 시 준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규정된 광고 단가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기구독자 유치에 대해 안내했다.

이 사장은 정기구독자 관리를 위해서는

구독 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와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 구독료 원칙 준수, 무단 투입 금지 등을 주문했다.

이승배 사장은 “언론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재정적 불안정 등 변화하는 생태계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바른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가져

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하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 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강령으로 삼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장흥군과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앞둔 조합원 자녀와 가정을 격려하는 행사를 열고 학용품 세트를 전달했다.

장흥공무원 노조, 조합원 자녀 입학 응원

학용품 세트 전달...“가족친화 프로그램 확대”

장흥군과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앞둔 조합원 자녀와 가정을 격려하는 행사를 열고 학용품 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자녀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조합원 가정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표로 2021년부터 격려 행사를 가졌다. 올해 현재까지 6년간 총 58명의 조합원 자녀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돕는 맞춤형 후생

복지 및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형 위원장은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은 가정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뜻깊은 출발이다”며 “조합원들의 양육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는 아이들과 조합원 가정에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모님들도 너무 부담 갖지 않도록, 군에서도 가족을 챙길 수 있는 분위기를 더 따뜻하게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밀반찬에 정 담아 취약계층 전달

무안 삼향읍 ‘찬찬찬’ 사업 시작

무안군 삼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선희·양성문)는 최근 취약계층 20세대를 대상으로 ‘삼향읍 찬찬찬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것으로, 밀반찬 조리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가구에 매월 밀반찬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성문 민간위원장은 “반찬 나눔이 이웃 간 정을 잇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선희 삼향읍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살피는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광주 서구와 화순군은 최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상호 협력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 서구-화순군, 교류·협력 힘 모아

상생 협력 체계 구축·생활 인구 유입 촉진

광주 서구와 화순군이 문화·관광·체육·경제·교육·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주 서구와 화순군은 최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상호 협력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구북구 화순군수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 이호범 화순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두 지자체가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문화·관광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지자체의 협약을 계기로 지역 강점을 공유·벤치마킹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을 기념해 화순군은 지역 대표 농특산품인 파프리카와 불미나리즙을, 광주 서구는 복지 대표브랜드 ‘천원국시’ 말키트와 제과 명장이 만든 파이를 상호 교환했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이번 협약

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양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광주·전남 통합이 가시화되는 중요한 시점에 광주 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화순군의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과 광주 서구의 도심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광역 상생 생활권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영암군을 찾아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 후원금을 전달했다.

건협 광주전남지부,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

강진·영암군 대상...주민 복지사업 활용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전남 강진군과 영암군을 찾아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 내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건강 관리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민 복지, 건강 관련 공공사업에 활용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

자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 광주전남지부는 취약계층 맞춤 지원, 건강 캠페인, 예방 중심 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